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3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안전제일 고객 만족 지하철 시민 생활속으로 무한 질주

광주도시철도공사

“미래지향적 신개념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광주지하철 노사가 함께 손잡고 달려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이하 광주도시철도)가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공기업이 되겠다는 단란 포부를 안고 시민 속으로의 무한질주를 선포한 것이다.

광주도시철도는 8년 동안 빠짐없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에 참여한 온 단골 팀이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특성상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서로 달라 함께 모일 기회는 적지만, 4~5명씩 조를 이뤄 웰드컵 경기장

일대를 달리며 체력을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정보 공유는 물론, 마라톤 매니아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자신에 맞는 훈련법을 찾는 등 시민들간의 끈끈한 정을 키워가고 있다.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그동안 광주도시철도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안전 지하철, 고객만족 지하철로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하철 역사를 시민생활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문화지하철 사업과 특화된 시민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타 지하철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는 올해 ‘무한경쟁의 선두

를 지키는 미래대응 다기능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각적인 부대수익사업 모델 개발과 마케팅 시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공격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공사와 임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광주도시철도의 포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직원 건강이 바로 시민의 안전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오행원 사장이 이번 대회를 몸살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이번이 첫 출전인 김형민 팀장(고객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제일 고객 만족 문화 지하철’을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도시철도공사 달리기들은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선진 공기업에 향한 협찬 질주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팀)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시민을 위한 안전한

“노사 화합의 장 만들겠다”

고 편리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나 스스로와는 물론 시민들과 약속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5Km 코스에 도전하는 김정민(홍보교육

팀)씨는 “최근 새로운 부서로 옮겨가며, 새 동료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생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라톤 매니아인 김일홍(승무원) 차장은 “마라톤은 자신의 심폐기능과 몸 상태를 체크해가며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운동”이라며 “절대 무

리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전 선수 외에도 오행원 사장과 노조 김대중 위원장, 양동운 사무국장 등 공사 임직원과 가족 200여명이 총 출동해 지하철 홍보는 물론 뜨거운 응원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번 대회가 노사 화합의 장이자 가족친화경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오는 2015년 광주 하계U대회 우승을 목표로 광주에 전지훈련캠프를 차린 몽골 예나피레 배구팀이 26일 조선대 ‘공포의 108계단’에서 체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몽골여전사들의 ‘행복한 도전’

조대 출신 장지훈 단장이 이끄는 예나피레 배구단 광주 훈련

오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내세운 몽골 여자배구팀 예나피레가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가 U대회 유치도시로 확정된 이후 출전 예상국 대표팀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또한 팀을 이끌어 온 장지훈(60) 단장과 정용하(49) 감독은 조선대 선·후배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고향을 찾은 것이다.

총 19명(선수 14명·임원 5명)으로 지난 20일 광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물 예정인 예나피레는 1년전과 비교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구기종목의 불모지” 몽골에서 어렵게 창단된 예나피레가 불과 2년만에 아시아 상위권 진입이라는 놀라운 도약을 이룬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1회 아시아여자대학배구 선수권대회에서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태국·중국·말레이시아·라오스 등 7개국을 참가한 이 대회에서 예상을 깨고 동메달을 획득, 국제무대 시상대에 처음 올랐다.

이는 몽골 구기종목 사상 첫 메달 획득의 쾌거였다. 이로써 예나피레 주전 7명은 몽골

정용하 감독 지휘 아래

‘공포의 108 계단’ 특훈 등 2015 광주 U대회 금도전

체육훈장을 받았으며, 장 단장은 외국인으로서 처음 체육훈장을 가슴에 다는 영예도 누렸다.

이러한 맹활약을 펼친 예나피레는 ‘2009 몽골 스포츠 팀부문 대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이렇게 1년새 훌쩍 커버린 예나피레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오는 2015년 광주 U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장지훈 단장은 “정용하 감독 지휘 아래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오고 있다. 앞으로 매년 광주를 찾아와 연습하면 광주가 우리 예전 홈구장이나 마찬가지이다”면서 “광주 U대회를 겨냥해 현재 16~22세인 선수들로 구성했으며 5년 후엔 정상을 넘볼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

신감을 보였다. 예나피레는 광주훈련 기간동안 오전엔 조선대에서 체력훈련, 오후엔 송원여상이나 광주전자공고에서의 전술훈련으로 팀의 조지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조선대 108계단 오르기는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강도 체력훈련으로 선수들 모두 허벅지 내두를 정도이다.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자르갈(센터·71kg·185cm)은 “몽골에서는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훈련이다. 계단이 많아 너무 힘들다.”면서 “한국선수들이 체력과 지구력이 강한 이유를 이제 알만하다”고 가쁜 숨을 내쉬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싸늘한 광주의 겨울날씨에 대해 “한겨울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 비하면 이곳은 봄날 기온과 비슷하다”면서 특별히 추운 기색은 없었다.

선수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세심하게 팀을 이끌어 오고 있는 정용하 감독은 “아직도 미숙한 점은 많지만 선수들의 의욕이 넘쳐 기술 습득이 의외로 빠르다”며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5년 후엔 무서운 팀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는 표정을 지었다.

예나피레는 30일 서울로 올라가 한양대에서 제2차 캠프를 차린 후 내달 9일 출국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마운드 올해도 믿어봐!

KIA 타이거즈의 팜 스프링캠프 투수조 전원이 1차평가를 무사히 통과했다.

KIA의 팜 캠프 투수조들이 27일 관에서의 훈련을 마무리 하고 일시 귀국한다. 광주에서 하루를 보낸 선수단은 29일 야수조 캠프가 마련된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해 시즌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KIA는 당초 팜 훈련성과에 따라 2~3명의 투수에게 미야자키행 ‘불합격통보’를 할 계획이었다. ‘중도탈락’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선수단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조범현 감독의 지휘아래 팜 캠프에서 훈련을 해왔던 투수들은 전원 미야자키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조범현 감독은 “몸을 잘 준비해 캠프에 참가한 선수도 있었고 준비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선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준비들이 잘 된 것 같다”며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원 일본캠프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당장 마운드에 기용하지 못하더라도 캠프를 통해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팜 캠프에는 신인 좌완 폼비 심동섭, 임기준을 비롯해 박상혁·정용운·전태현 등 2~3년차의 투수들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이중 전태현을 제외한 4명의 선수는 모두 좌완들이다. 그만큼 ‘좌완 불펜진 완성’도 어린 선수의 육성만큼 KIA에는 시급한 과제다.

팜 훈련 투수조 평가 몸상태 등 전원 합격 29일 日 캠프 합류

지난해 눈부신 성장세로 선발 자리를 꿰찬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KIA에 든든한 좌완 투수가 없다. 특히 중간에서 승리를 이어줄 좌완 계투진이 마땅치 않았다.

KIA는 신에 좌완 4인방과 함께 박경태, 문현정을 모두 캠프로 불러 들어서 좌완 불펜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팜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했던 좌완 투

수들은 전원 조범현 감독에게 합격판정을 받으며 일본에서 두 번째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다.

“무리없이 훈련이 진행됐고, 일본 훈련을 위한 준비과정이 잘 이뤄졌다”고 팜 캠프를 평가한 조범현 감독은 “팜 캠프가 몸 상태를 살피고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일본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곳이다. 연습 경기 등을 통해 2010시즌 전체적인 마운드 구성 작업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팜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선수단은 28일에도 무등경기장을 찾아 훈련을 한다. 일본으로의 출발에 앞서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에도 마운드 싸움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KIA 투수들이 팜 파세오 구장에서 스기모토 투수코치의 지도 아래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카고·템파베이, 찬호에 러브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결별한 박찬호(37)에게 시카고 컵스와 템파베이 레이스가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헤럴드’의 티드(SD)는 26일(한국시간) 컵스와 템파베이가 작년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월드시리즈 등 포스트시즌에서 활약한 베테랑 투수 박찬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볼을 회복한 박찬호는 지난 시즌 45경기에 나와 3승 3패 평균자책점 4.43을 남겼고 특히 구원투수로 등판해서는 2승2패 평균자책점 2.52로 인상적인 구위를 보여줬다.

지난 시즌 컵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 템파베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에 그쳐 두 팀 모두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했다.

컵스와 템파베이가 어느 정도로 박찬호

불펜요원 등 눈독 접촉 벌일지 관심

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선발 투수감보다 불펜요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과 연초를 국내에서 보낸 박찬호는 잠실구장에서 개인 훈련을 해왔고 최근 고향 연고지 팀인 한화이글스의 하와이 전지 훈련 캠프에 합류해 투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 시즌 진로를 놓고 장기전에 돌입한 박찬호가 컵스 또는 템파베이와 실제 접촉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원